

#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8전 9기'

창단 이후 8연패 끝 첫승

2011핸드볼 코리아 리그

강호 대구시청 꺾고 환호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이 전통의 강호 대구시청을 물리치고 창단 첫 승의 감격을 누렸다.

광주도시공사는 18일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1 SK 핸드볼코리아리그 여자 일반부 경기에서 대구시청을 28-26으로 꺾고 첫 승을 신고했다.

지난해 5월 창단 이후 참가한 태백산기 전국종합핸드볼대회와 전국체전에서 마수걸이 승을 올리는 데 실패했던 광주도시공사는 지난 2월 열린 2011 SK 핸드볼코리아컵 조별리그에서 인천시체육회와 한국체대, 서울시청에 내리 패배를 당하며 탈락했었다.

이번 핸드볼코리아리그에서도 용인시청과의 첫 경기에서 27-33으로 패한 뒤, 부산 BISCO와의 대결에서도 27-33으로 지면서 창단 후 8연패 중이었다.

광주도시공사는 1984년 창단한 대구시청을 맞아 전반전을 13-11로 마감한 뒤 후반전 15-15로 맞서며 창단 첫 승을 거두었다.

반한솔이 10골을 몰아넣으며 승리의 주역이 됐고, 신은화와 최슬기도 각각 6골을 기록하면서 대구시청을 제압했다.

/김여울기자 woo@kwangju.co.kr



18일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2011 SK 핸드볼 코리아리그 대구시청과 광주도시공사의 경기에서 광주도시공사 최승기가 슛을 하고 있다.

## 양학선, 런던 올림픽 희망 보인다

국가대표 선발전 겸 전국종별선수권

대학부 단체전 이어 도마·링 우승

남자 기계체조의 간판 양학선(19·한체대)이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겸한 제66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남자 대학부 3관왕을 차지했다.

광주체육고 출신인 양학선은 18일 영광스포티움에서 끝난 개인 종목별 결선에서 주종목인 도마(15.42점)와 링(14.025점)에서 우승을 일궈내며 대표팀 에이스다운 성적을 냈다.

한편, 울산 학성여고를 졸업하고 올해부터 여자 일반부에서 뛰는 '최강' 조현주(19·경북도청)는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운동 4종목을 합산한 개인종합(54.250점)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4개 개인 종목을 모두 휩쓸며 5관왕을 달성했다.

지난해 처음 출전한 세계선수권대회 도마에서 4

위에 오르고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낸 양학선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한국 체조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기대하는 유망주다.

광저우 아시안게임 마루운동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수연(25·포스코건설)은 마루운동-안마-링-도마-평행봉-철봉 등 6종목을 다 뛰는 남자 일반부 개인종합에서 84.350점을 획득하고 1위를 차지했다.

또 마루운동(14.425점)에서도 우승을 일궈내며 대표팀 에이스다운 성적을 냈다.

한편, 울산 학성여고를 졸업하고 올해부터 여자 일반부에서 뛰는 '최강' 조현주(19·경북도청)는 도마-이단평행봉-평균대-마루운동 4종목을 합산한 개인종합(54.250점)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4개 개인 종목을 모두 휩쓸며 5관왕을 달성했다.



〈양학선〉  
/서부취재본부=황성학기자 hwang@kwangju.co.kr

대한체조협회(회장 정동화 포스코건설 사장)는 조만간 강화위원회를 열어 이번 대회 개인종합 성적을 토대로 10월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할 남녀 선수(각 7명)의 3배수를 뽑는다.

/서부취재본부=황성학기자 hwang@kwangju.co.kr

## 금당 공인중개사

## ■ 감정가 이하

- 오피스 부지 작업중인 지역, 동립동 삼익오피트 뒤 주거지역 1845평 투자성 좋은 매도 9억2300만원
- 종흥동 도로집 앞에 대지 196 건평 433평 4층건물 공시지가 3억9천 원요인설합 5억원
- 금남로 5가 대로변 대지 496 건평 372 평시가 7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매도 53억원
- 화순 이수면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956평 창고·공장적합 대출 4천5백 평·기지에 매도 8700만원
- 금남로 5가 대지 80 건평 300 평시가 13억3천 매도 10억8천
- 금남로 4가 구 광주은행 4거리 대지 494 건물은 301평과 680평 2동 있음 공시지가 87억5천 매도 35억
- 북구 아파트단지 목목동·골포인샵등 대지 440 건평 507 공시지가 9억7천 원은행 4억7천 전세 8700 1월 280만원 사우나, 헬스·에어로빅은 직영교, 화도기능 12억5천
- 광주여일 원룸 대지 108 건평 383 김정11억8천 매도 6억7천
- 황금동 4층 상가주택 대지 68 건평 145 미도 3억3천
- 내방동 483평 원룸·생활주택적합 대출 79억 5억
- 주유소 학순을 땅 1118평 공시지가 10억8천 매도 15억5천
- 동립동 아파트 예약지역 계획도로 코너 대지 135평 1억6천
- 풋·밸류화점 부근 대지 90평 4층 건물 공시지가 5억 매도 4억5천
- 대인동 대지 372평 건평 440 공시지가 25억 7천 매도 14억
- 매도·교환
- 학순동 서성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음 1억7500
- 남평동 교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정 1억6천8백
- 산수동 호남면산면 2층주거지 220평 시찰별적합 2억7천
- 하남공단 도천동 자연녹지 506평 공장적합 3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 |        |   |
|--------|---|
| 근린시설   | · 광산구 월계동 토지 110평 건평 375평 지하 1층 지상 6층 감정가 13억 최저가 1억5천만 |
| 농가시설   | · 영광군 흥농읍 토지 190평 건물 850평 공장용지증집지 감정가 13억 4천 최저가 1억5천만  |
| 단독주택   | · 광산구 송정동 대지 164평 건평 153평 김정가 3억2천만 최저가 2억3천만           |
| 전원주택   | · 회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8천만                   |
| 아파트·빌라 | · 북구 두암동 대세대빌리 60평형 3층 김정가 1억7천만 최저가 1억2천만              |
| 다가구    | · 북구 우신동 대지 48평 건평 83평 3층 다가구 김정가 1억7천만 최저가 9천7백만       |
-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 나대지 금매

서구 금호동 서광주역 나대지 178㎡(54평) 택지개발지구. 매매가 3.3㎡당 160만원.

### 전원주택지

-남구 대지동(대촌부지), 일반주거지역. 미들내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 (3.3㎡당 365.000원). 회순도곡 전원주택지 -회순군 도곡면 허리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5㎡(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야. 2차선 포장도로 접침. 매매가 3.3㎡당 16만원.

### 자연녹지

-서구 마월동 서광주역 앞 전 2,590㎡(783평) 3.3㎡당 98만원. -광산구 신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기능.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 무등산 전원주택지

복구 회암동 대지 433㎡(131평). 전. 임 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경관양호.

### 쌍촌동 2차선도로 나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매가 3.3㎡당 235만원. 카센타. 식당·업무용빌딩 적합.

###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함.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010-3616-8698. 062-233-2222

## 장미란 세계기록 깨졌다

〈인상+용상=326kg〉

장미란(28·고양시청)이 보유한 여자 역도 합계 세계기록이 깨져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한국 역도계에 비상이 걸렸다.

타타리나 카시리나(20·러시아)는 17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유럽여성선수권대회 여자 최종량급 (+75kg)에서 인상 146kg, 용상 181kg 합계 327kg를 들어 올려 세부문에서 모두 우승했다.

세계기록을 두 차례나 깨았지만, 그는 인상에서 자신이 보유한 세계기록 145kg을 1kg 늘렸고, 장미란은 보유한 합계 세계기록 (326kg)도 1kg 더 드는 것으로 경신했다.

한때 인상과 용상, 합계 세계기록을 모두 석권했던 장미란은 이제 용상 세계기록(187kg)만 보유하게 됐다.

카시리나가 작년 세계선수권대회를 제패한 데 이어 이번에 월드컵의 지위를 상징하는 합계 세계기록까지 깨어지워 장미란은 세계 2인자로 위상이 낮아졌다.

장미란은 작년 터키 안탈리아에



러시리나 유럽 선수권서 327kg 번쩍 런던 올림픽 앞둔 한국 역도계 초비상

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카시리나와 명수평(중국)이 이어 합계 3위에 그쳐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

당시 카시리나는 인상 145kg에 성공해 장미란이 세운 세계기록 141kg을 4kg나 늘리면서 과반을 일으켰다.

/연합뉴스

지했다.

김자인은 작년 IFSC 월드컵 나이도(리드)에서 다섯 차례나 우승했지만, 불더링 제패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김자인은 리드와 불더링 타이틀을 동시에 차지해 세계 최초의 여성 선수로 기록됐다.

김자인은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불더링 월드컵에서 앙마도·마리아(오스트리아)와 멜리사 레네(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불더링은 5m 인공 암벽에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주어진 과제를 빨리 해결하는 선수가 이기는 경기다. 두 종목의 특색이 완전히 달라 남성 선수 중에도 월드컵에서 두 종목을 모두 우승한 선수는 데이비드 라마(오스트리아)와 아담 온두라(체코)밖에 없다.

/연합뉴스

## 김자인 역시 '암벽 여왕'

### 국제 클라이밍 나이도·불더링 세계 첫 동시 석권

'스파이더걸' 김자인(22·고려대·

노스페이스)이 스포츠클라이밍의 양대 종목인 나이도와 불더링에서 동시에 우승한 세계 최초의 여성선수가 됐다.

김자인은 1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불더링 월드컵에서 앙마도·마리아(오스트리아)와 멜리사 레네(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지했다.

김자인은 작년 IFSC 월드컵 나이도(리드)에서 다섯 차례나 우승했지만, 불더링 제패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김자인은 리드와 불더링 타이

틀을 동시에 차지해 세계 최초의 여성 선수로 기록됐다. 나이도는 몸에 줄을 매고 15m 정도 높이의 인공 암벽을 제한된 시간 안에 올라와 하는 종목이다.

### 잉글랜드 FA컵 이청용도 외연

#### 볼턴, 스토크 시티에 0대5 패

크 시티와의 2010-2011 잉글랜드 FA컵 준결승에서 전반에만 세 골을 내주고 0-5라는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이날 패배로 1957-1958시즌 우승 이후 53년 만의 결승 진출은 물론 정상 탈환까지 노렸던 볼턴의 꿈은 산산이 깨졌다.

/연합뉴스

## 세정공인중개사

### 전원주택지 ★급 매★